

한국 젊은 세대의 고민 ~ 소설 '서른의 반격'을 읽다

여러분은 '서른의 반격'이라는 소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지금의 한국 사회와 젊은이들의 고민이 현실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조금 소개를 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한 번 살펴 봅시다.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 년에 태어난 주인공 김지혜. 그 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인 지혜에, 가장 많은 성씨인 김 씨인 평범 그 자체인 인물입니다. 올 해 서른 살이지만, 여전히 정규직에 취직하지 못한 채, 어떤 대기업 산하의 문화 센터에서 비정규직원(인턴사원)으로서 매일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 한국의 경제와 사회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 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IMF 로부터 구제금융지원을 받게 된 이후, 사회는 급격하게 변해갔습니다.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IMF 로부터 강요받은 신자유주의적인 고용 정책은, 대량의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였고, 청년들은 스펙을 높이기 위한 무한경쟁에 빠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항의 데모를 해 왔지요. 그런 가운데 자라난 지해도 대학 시절에는 데모대의 한 가운데에서 촛불을 들고, 기성 세대가 만든 여러 모순을 고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 그 열정은 식어버리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 타협만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입 인턴 사원으로 들어온 규옥과의 만남을 통해 지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규옥은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전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어느 새 규옥의 주변에는 지혜처럼 현실에 상처 받은 멤버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의 작은 반격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작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같은 이들의 마음이 모여서 조금씩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바꾸어 갑니다. 또한, 다시 만난 지혜와 규옥의 앞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2 년 일본서점대상 번역소설부문 1 위 작품인 손원평 작가의 ‘서른의 반격’에서는, 지금의 한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꼭 읽어 봐 주세요.

김근삼 (지학관대학)